

기사입력 2014/12/11 16:39

▶ 인쇄하기

태권도로 한국 배운다



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브롱스의 인터내셔널리더십차터고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10일 승급 심사와 함께 벨트 세리머니를 치렀다. 태권도와 한국문화 수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

[코리아태권도 제공]